

식생활 수납가구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도

A Study on the Satisfaction and Needs of Dinning-Kitchen Storage Furniture

권 명 희* · 김 선 중**
Kwon Myung Hee · Kim Sun Joo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planning Dinning-Kitchen storage space. The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method were used for this study . The result were analyzed SPSS package program. The major findings were summarized as follows:
The size of apartment was related to satisfaction of Dinning-Kitchen storage furniture and was related to storage usage

I. 서 론

1.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현대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거형태인 아파트는 그 기능적인 편리성 때문에 크게 선호되고 있으며 따라서 공급물량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의 획일적인 공간구성을¹⁾ 갖는 아파트에 있어 각기 다른 거주자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납공간의 계획이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아파트에 설치된 수납공간은 주택내 전체 수납비가 6.65-28.84%까지 차지하고 있으나 거주자들은 수납의 많은 불편과 수납공간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용환, 1983 ; 광인숙, 1983 ; 김문상, 1988 ; 김소영, 1995,). 그리고 전국 통계연람에 의하면 아파트의 비율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므로 생활공간의 질적인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아파트의 수

납공간부족은 해결해야할 시급한 과제이다.

수납이란 물건을 사용하지 않을 때, 그 유지와 보존을 위해 별도의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수납공간은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수납물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각 거주자마다 소유하고 있는 생활용품의 종류나 양은 제반요소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실제 거주자를 중심으로 물품수납에 관한 실태 및 의견을 반영한다면 거주자의 만족도를 최대한 증가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수납공간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아파트 수납공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각 실이나 혹은 가족 1인당에 대한 필요 수납공간을 연구하였을 뿐(송종석, 이인희, 1975; 윤도근, 건설부, 1976, 1978; 이문섭, 1978; 광인숙, 1983, 김용환, 1984; 손광제, 1995; 김문상, 1988; 박영순, 1989, 1991), 전반적인 수납공간의 위치나 크기 및 구조등 거주자의 수납용도에 맞도록 수납물에 대한 고려와, 거주자의 요구를 깊이 있게 조사한 연구사례들은 상당히 미흡하다. 또한 아파트의 수납공간 부족은 주택의 개조로 이어지는²⁾ 상당한 경제적 낭비를 가져오고 있는 실정이다.

* 울산대 주거환경대학원

** 울산대학교 교수

1) 박영순·노현선(1990) 아파트 거주자의 물품수납 의식 및 만족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8권 4호 p.52.

앞으로의 공동주택 구조는 다양한 생활의식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되어 가는 추세이며, 이러한 주택구조의 변화는 수납의 측면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특히 식당과 부엌에서는 매우 다양한 부엌비품이 나타날 전망이다. 수납을 고려해야 할 물품의 종류와 수량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기능상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생활 공간의 수납공간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 하겠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물품수납문제가 특히 심각하다고 지적된 식생활공간을³⁾ 중심으로 거주자의 합리적인 수납방식 모색 및 효율적인 수납공간계획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내용

본 연구는 물품수납의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고 지적된 지적된 40평 이하의 중 소규모 아파트와 대형화 추세로 가는 것을 고려한 40형의 아파트의 식생활공간을 중심으로(김문상, 1988; 대한주택공사, 1997) 거주자의 물품수납 및 수납가구상태와 수납공간 및 수납방식 만족도와 더욱 요구되는 수납유형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식생활공간의 수납계획에 도움이 되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향후 식생활공간 수납계획을 설정하기 위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납가구 만족도와 현재 전반적 수납공간 대한 만족도와
2. 수납 요구도와 관련성을 파악하여, 수납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는 것이다.

2) 홍선경(1994), 아파트 거주자의 주택개조 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52-53.

박영순외 4인(2000), 거주자 디자인 선호에 따른 아파트 가구디자인 개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2호, p.7.

3) 김문상(1988), 아파트 수납공간의 계획기준설정에 관한 연구, p.60.

대한주택공사(1997), 입체수납시스템을 적용한 소형공동주택의 내부공간 계획연구, p.20.

조리기구 및 식품류에 대한 정리욕구가 강한 곳으로서 거의 대부분의 가구에서 식기 보관장 및 식품보관공간의 부족에 대해 강한 불만 제기하였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1990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였다. 시간적으로 최근의 10년 이내에 지어진 아파트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과거의 아파트 수납가구와 최근의 수납가구가 다르기 때문이다.

규모에 있어서는 90년대의 아파트평면을 조사해 본 결과 20평형대와 30평형대의 수치가 가장 많은 분포대를 이루고 있어 중 소규모의 아파트의 일관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고 향후 대형화 추세를 반영하고자 40평형대도 함께 조사하여 수납공간계획에 대해 보다 적용 타당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사방법은 중·소규모아파트의 식생활공간을 중심으로 수납공간에 대한 실태 및 만족도와 수납가구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려는 것으로 자기응답식 설문지 조사법을 사용하였다.

2. 조사내용

본 실태조사의 도구인 설문지는 문헌조사에서 밝혀진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 구성하였다. 따라서 거주자를 대상으로 식생활공간에 관련된 수납의 견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 설문조사의 내용은 크게 ①조사대상의 일반사항에 관한 문항 ② 수납실태의 특성 ③ 수납가구에 대한 만족도와 수납가구와 관련한 요구사항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의 내용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주거전공분야 교수에게 설문지의 내용을 검토 받아 조사도구를 완성하였다

3. 자료수집 및 처리

본 실태조사는 2001년 9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조사대상 아파트를 본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자기응답식 설문지

조사법으로 20평형대와 30평형대, 40평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자료처리는 SPSS Package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카이검증, 일원분산분석을 조사하였다. 본 조사 결과 수납만족도를 묻는 문항과 요구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alphach를 측정한 결과 .86과 .65로 나타났다.

Ⅲ. 연구결과 분석 및 논의

1.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주거특성

조사대상지의 거주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와 같다. 먼저 연령의 분포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중 남편의 경우 40세이상 45세미만이 75명(32.3%)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 35세이상 40세 미만 73명(31.5%), 50세이상 27(11.6%), 25세이상 35세 미만 11(4.7%)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경우 35세 40세 미만이 91명(39.2%)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40세이상 45세 미만 60명(25.9%), 25세이상 35세 미만 42명(18.1), 50세이상 19명(8.2%)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있어 남편의 경우 대졸이상이 122(52.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고졸이 101명(43.5%), 중졸이하 5명(2.2%)의 순으로 고졸과 대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부인의 학력의 경우는 고졸이 160명(69.0%)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이 대졸이상이 62명(26.7%), 중졸이하 10명(4.3%)순으로 나타나 고졸이 대졸보다 42.3% 많은 결과가 나타났다.

직업에 있어 남편의 경우 생산관련직 및 운전직이 88명(37.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행정사무 및 관리직 68명(29.3%), 자영업 41명(17.7%), 전문기술직 22명(9.5%), 판매직 4명(1.7%), 서비스직 2명(0.9%), 무직 3명(1.3%)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부의 경우 전업주부가 199명(85.7%)으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다. 월평균 소득은 200이상

250만원미만인 가구가 55가구(23.7%)와 150이상 200만원미만인 50가구(21.6%)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250이상 300만원미만이 41가구(17.7%), 350만원이상 21가구(9.1%), 100이상 150미만 20가구(8.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수	f(%)	변수	f(%)		
연령	남편	25세-35세미만	11(4.7)		
		35세-40세미만	73(31.5)		
		40세-45세미만	75(32.3)		
		45세-50세미만	44(19.0)		
		50세이상	27(11.6)		
	계	232(100)	부인	25세-35세미만	42(18.1)
	35세-40세미만	91(39.2)			
	40세-45세미만	60(25.9)			
	45세-50세미만	19(8.2)			
	50세이상	19(8.2)			
계	232(100)	월 평균 소득	100-150만원미만	20(8.6)	
150-200만원미만	50(21.6)				
200-250만원미만	55(23.7)				
250-300만원미만	41(17.7)				
350만원이상	21(9.1)				
무응답	4(1.7)				
계	232(100)		생활 주기	신혼기가족	3(1.3)
미취학가족	30(12.9)				
초등교육기가족	83(35.8)				
중등교육기가족	66(28.4)				
성년기가족	50(21.6)				
계	232(100)				
직업	남편	자영업		41(17.7)	
		전문/기술직		22(9.5)	
		판매직		4(1.7)	
		생산관련직 및 운전직		88(37.9)	
		농업, 축산업, 수산업	4(1.7)		
	부인	서비스직	2(0.9)		
		행정사무 관리직	68(29.3)		
		무직	3(1.3)		
		계	232(100)		
		전업주부	199(85.7)		
취업주부	33(14.3)				
계	232(100)				

(무응답으로 인해 빈도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생활주기는 83가구(35.8%)가 초등교육기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66가구(28.45%)가 중등교육기, 50가구(21.6%)가 성년기 가족, 30가구(12.9%)가 미취학아동기, 3가구(1.3%)가 신혼기의 순으로 나타난 핵가족 형태를 취하고 있다.

지금 까지 살펴본 전체적인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불 때 공업도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직업에 있어서 생산관련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 등 대표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 주거특성

조사대상자의 주거특성을 살펴보면 <표 2 >과 같다. 먼저 주택의 소유형태는 자가 203명(87.5%)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전세의 소유형태(9.9%), 사택(1.3%), 월세(0.4%)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은 4년이상 6년미만이 90가구(38.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2년이상 4년미만 53가구(22.8%), 6년이상 46가구(19.8%), 1년이상 2년미만 27가구(11.6%), 1년미만 16가구(6.9%)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의 주택규모는 30평대가 126가구(54.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20평대가 73가구(31.5%), 40평대 33가구(14.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주거특성

단위:빈도(%)

변수		f(%)	변수		f(%)
소유 형태	자가	203(87.5)	주택 규모	20평대	73(31.5)
	전세	23(9.9)		30평대	126(54.3)
	월세	1(0.4)		40평대	33(14.2)
	사택	3(1.3)		계	232(100)
	무응답	2(0.9)	이사 계획	1년이내	18(7.8)
무응답	2(0.9)	1-2년후		44(19.0)	
계	232(100)	3-4년후		61(26.3)	
거주 기간	1년미만	16(6.9)		5년이상후	92(39.7)
	1-2년미만	27(11.6)		계획이없다	17(7.3)
	2-4년미만	53(22.8)		계	232(100)
	4-6년미만	90(38.8)			
	6년이상	46(19.8)			
계	232(100)				

다음으로,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서 이사계획을 살펴보면 5년이상후 계획있는 경우 92가구(39.7%)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이 3-4년후 61가구(26.3%), 1-2년후 44가구(19.0%), 1년이내 18가구(7.8%), 계획이 없다 17가구(7.3%)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수납실태

1) 식생활공간의 수납가구

<표 3> 식생활공간 수납가구

단위:평형대빈도(%)

평형별 수납가구	20평형대	30평형대	40평형대	전체	χ^2
부엌 상부수납장	73(100)	126(100)	33(100)	232(100)	-
부엌 하부수납장	73(100)	126(100)	33(100)	232(100)	-
부엌 키 큰장	17(23.3)	64(50.8)	30(90.0)	111(47.8)	42.61***
식기장식장	39(53.4)	79(62.7)	26(78.8)	144(62.1)	6.26*
보조 수납가구	31(42.5)	63(50.0)	25(75.8)	119(51.3)	10.17**
선반	43(58.9)	74(58.7)	24(72.7)	141(60.8)	2.36
다용도실 수납가구	58(79.5)	106(84.1)	32(97.0)	196(84.5)	6.29

***p<.001 **p<.01 *p<.05

부엌 상부수납장과 부엌 하부수납장의 경우는 평형에 관계없이 모두 설치되어 있었고, 부엌 키 큰장의 경우 20평형대 23.3%, 30평대 50.8%, 40평형대 90.0%로 평형과 차이를 보였다.

식기장식장의 경우도 20평형, 30평형, 40평형 각각 53.4%, 62.7%, 78.8%으로 설치되어 평형별 차이를 보이며, 조사대상자 전체의 62.1%가 식기장식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조 수납가구도 조사대상자자의 전체 51.3%로 평형별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나, 선반과 다용도실 수납가구 설치는 조사대상자의 전체비율이 각각 60.8%, 84.5%로 평형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효율적 수납을 위해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참조>.

2) 식생활공간의 주택특성

조사대상자의 작업대배치는 평형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참조>. 20평형대의 83.6%가 일자형 배치, 30평형대의 92.1%가 7자형배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40평대의 작업배치는 72.1%가 7자형 배치된 결과 나타났다. 그리고 20평형대와 30평형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는 배치가 공

간의 여유로 24.2%가 ㄷ자형작업배치를 설치하였다.

<표 4> 부엌작업배치형태

		단위:빈도(%)			
평형별 작업배치	20평형대	30평형대	40평형대	전체	통계값
일자형	61 (83.6)	9 (7.1)	1 (3.0)	71(30.6)	χ^2 =179.61***
ㄱ자형	12 (16.4)	116 (92.1)	24 (72.1)	152 (65.5)	
ㄷ자형	-	10(4)	8(24.2)	9 (3.9)	
전체	73 (31.5)	126 (54.3)	33 (14.2)	23 (100)	

***p<.001 **p<.01 *p<.05

20평형대와 30평형대의 공간 연결형태는 세공간 개방형으로 각각 61.6%, 64.3%로 다른 평면연결형태보다 많이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부엌, 거실/식당분리형으로 각각 37.0%, 35.7%로 20평형과 30평형은 비슷한 빈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40평형은 부엌, 식당/ 거실분리형이 75.8%로 다른 연결형태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평형대와 40평형대에 비해 공간이 넓기 때문에 식생활공간과 거실을 분리된 평면연결형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표 5>참조

<표 5> 평면 연결형태

		:단위: 빈도(%)			
평형별 평면연결형태	20평형대	30평형대	40평형대	전체	통계값
세공간 개방	45(61.6)	81(64.3)	5(15.2)	131(56.5)	χ^2 = 34.92***
부엌, 식당/ 거실분리	27(37.0)	45(35.7)	25(75.8)	97(41.8)	
식당, 거실/ 부엌분리	1(1.4)	-	3(9.1)	4(1.7)	
전체	73(31.5)	126(54.3)	33(14.2)	232(100)	

***p<.001 **p<.01 *p<.05

4) 수납공간확보를 위해 실제취한 방법

조사대상자의 식생활공간의 부족한 수납공간의 확보를 위해서 실제 취하신 방법중 키 큰장을 구입을 하는 경우와 집 구조를 변경한 경우는 평형

에 관계없이 각각12.5%, 6.5%로 낮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식기장식장 구입, 조리보조수납 도구 구입은 평형과 유의적 차이가 없이 키 큰장보다(34.9%) 높게 나타났다. 이는 키 큰장보다 수납공간 확보를 하기에 어려움이 적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그리고 웨건을 구입하여 수납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평형과 차이가 나타났다. 웨건을 구입한 경우는 큰 평형일수록 더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선반을 설치하거나 상자나 박스를 이용해서 수납하는 경우는 큰 평형보다 작은 평형이 더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평형별 차이가 있었다. 이는 더 이상의 공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여겨진다<표 6참조>

<표 6> 각 수납공간 확보방법별 채택 여부

		단위:빈도(%)				
수납공간 확보방법	평형별	20평 형대	30평 형대	40평 형대	전체	통계값
키 큰장유 구입		7 (9.6)	20 (15.9)	2 (6.1)	29 (12.5)	χ^2 3.127
식기장식장 구입		24 (32.9)	47 (37.3)	10 (30.3)	81 (34.9)	χ^2 =0.76
웨건을 구입		4 (5.5)	24 (19.0)	9 (27.3)	37 (15.9)	χ^2 =10.03 * *
조리보조 수납도구 구입		24 (32.9)	38 (30.2)	12(36.4)	74 (31.9)	χ^2 =0.511
선반을 설치		47 (64.4)	65 (51.6)	12 (36.4)	124 (53.4)	χ^2 =7.56 *
창고로 설치		16 (21.9)	30 (23.8)	11 (33.3)	57 (24.6)	χ^2 =1.68
상자나 박스를 이용해서 수납		28 (38.4)	32 (25.4)	5 (15.2)	65 (28.0)	χ^2 =7.01 *
집구조를 변경		5(6.8)	9(7.1)	1(3.0)	15(6.5)	χ^2 =8.24

***p<.001 **p<.01 *p<.05

5) 수납공간을 개선하지 못한 이유

부족한 수납공간을 느끼면서 실제 개선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 7>와 같다.

개선하지 못한 사항 중에서 20평형대의 경우 높은 항목은 '비용이 들어서(39.7%)'라는 것과 '더 이상의 공간이 없음으로(30.1%)' '번거로워서 (13.7%)'라는 점, '우리집이 아니므로'라는 것이다.

또한 30평형대의 경우도 '비용이 들어서(45.2%)', '더 이상의 공간이 없음으로(19.8%)' 등의 항목이 개선하지 못한 이유로 나타났다.

40평형대의 경우는 20평형대와 30평형대와 다르게 개선하지 못한 높은 항목이 '비용이 들어서(21.1%)'보다 '번거로워서(45.5%)'으로 주택규모가 경제적 이유와 관계된 개선하지 못한 이유라고 판단된다.

<표 7>수납공간을 개선하지 못한 이유

단위:빈도(%)

평형별 개선하지 못한 이유	20평형대	30평형대	40평형대	전체	통계값
비용이 들어서	29(39.7)	57(45.2)	7(21.2)	93(40.1)	$\chi^2 = 36.49^{***}$
번거로워서	10(13.7)	16(12.7)	15(45.5)	41(17.7)	
더 이상의 공간이 없음으로	22(30.1)	25(19.8)	4(12.1)	51(22.0)	
필요성이 강하지 않으므로	4(5.5)	20(15.9)	5(15.2)	29(12.5)	
우리 집이 아니므로	8(11.0)	4(3.2)	1(3.0)	13(5.6)	
기타	-	4(3.2)	1(3.0)	5(2.2)	
전체	73(31.5)	126(54.3)	33(14.2)	232(100)	

***p<.001 **p<.01 *p<.05

3. 수납만족도

1) 수납가구별 만족도

만족도는 매우만족 5점에서 매우불만족 1점까지 5단계 리커트 척도를 조사하였다.

수납가구에 대한 만족도는 <표 8>에서 보여주고 있다. 수납가구에 대한 평형에 따라 비교해보면, 먼저 부엌 상부수납장의 경우는 보통(3)점보다 높은 만족도로 평형간의 유의적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부엌 하부수납장, 다용도실 선반, 다용도실 창고의 만족도는 보통(3)보다 낮은 점수로 평형간의 유의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엌 키큰장, 부엌보조기구, 식기장식장의 만족도가 20평형대와 30평형대에 비해 40평형대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는데 이는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산분석과 scheffe'의 다중범위검정을 실시한 결과로 알 수 있다.

scheffe'의 다중범위검정을 한 결과 부엌의 키큰장과 부엌 보조기구, 식기장식장의 만족도는 평형간의 유의적 차이가 나타났다.

<표 8> 수납가구에 대한 만족도

N=232

수납가구	평형별 만족도 평균	20평형대	30평형대	40평형대	F값	scheffe'		
						20평형	30평형	40평형
수납가구	부엌 상부수납장	3.05	3.17	3.30	1.64	a	a	a
	부엌 하부수납장	2.73	2.97	2.88	1.85	a	a	a
만족도	부엌 키큰장	1.25	1.69	2.38	7.76**	a	a	b
	부엌 수납보조기구	1.88	1.94	2.91	7.04**	a	a	b
	식기장식장	2.34	2.22	2.97	3.68*	a	a	b
	다용도실 선반	2.48	2.5	2.57	0.94	a	a	a
	다용도실 창고	2.64	2.603	2.636	0.36	a	a	a

***p<.001 **p<.01 *p<.05

5:매우만족 4:만족 3:보통 2:불만족 1:매우 불만족

2) 수납가구별 면적, 위치,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

만족도는 매우만족 5점에서 매우불만족 1점까지 5단계 리커트 척도를 조사하여 수납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평형별로 유의적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F검증을 실시한 결과, 부엌의 경우 수납면적이 유의도수준 .001수준에서, 수납편리성은 .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식당의 경우 수납면적(유의도수준.001), 수납위치(유의도수준.01), 수납편리성(유의도수준.05)은 평형과 유의적 차이가 나타났다. 다용도실의 평균 만족도는 다른 공간에 비해 낮으며, 평형간의 면적, 위치, 편리성은 유의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용도실의 공간은 평형에 관계없이 수납의 불만이 높게 나타났다.

<표 9> 수납공간에 대한 만족도

N=232

수납공간만족도	평형별	20평 형태	30평 형태	40평 형태	평 균	F값	scheffe'		
							20	30	40
							평형	평형	평형
공 간 별 만 족 도	수납면적	2.56	2.94	3.19	2.88	5.88***	a	b	b
	수납위치	2.88	3.02	3.09	2.98	.448	a	a	a
	수납관리성	2.63	2.88	3.00	2.83	2.94*	a	ab	b
	수납면적	2.49	2.73	3.00	2.74	6.02***	a	a	b
	수납위치	2.70	2.86	3.15	2.88	4.76**	a	ab	b
	수납관리성	2.69	2.80	3.00	2.82	3.68*	a	ab	b
다 도	수납면적	2.40	2.64	2.67	2.57	2.82	a	a	a
	수납위치	2.62	2.75	2.84	2.74	1.23	a	a	a
	수납관리성	2.40	2.65	2.70	2.58	1.76	a	a	a

***p<.001 **p<.01 *p<.05 N.S non significant

5:매우만족 4:만족 3:보통 2:불만족 1:매우 불만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릇이나 식품을 모두 보관할 수 있다(.001유의도수준), '항목과 조리행위와 관련하여 수납이 용이하도록 배치가 잘 되어 있다(.01유의도수준), '부엌의 수납가구는 식기의 크기, 형태별로 보관할 수 있도록 높이조절을 가능하다(.05), '식당의 장식장은 사용하기에 적당한 위치에 있다(.001)'에 대한 것이다. 그 외의 항목들은 평형간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지만 모든 평형에서 만족도가 낮게 평가 되었다.

4. 식생활공간의 조리물품과 관련된 수납요구사항

수납요구는 매우그렇다 5점에서 전혀그렇지않

<표 10> 조리물품관련 수납만족도

N=232

조리물품 수납만족도 항목	20평형태	30평형태	40평형태	평균	F값
부엌의 공간은 충분하여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릇이나 식품을 모두 보관할 수 있다	2.54	2.98	3.36	2.90	14.54* * *
부엌의 수납가구는 조리행위와 관련하여 수납이 용이하도록 배치가 잘 되어 있다	2.80	3.00	3.21	2.97	4.66* * *
부엌의 수납가구는 보관한 물품을 쉽게 꺼낼 수 있다	3.03	3.10	3.27	3.10	1.28
부엌의 수납가구는 사용하기에 편리한 곳에 물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90	3.33	3.24	3.18	0.96
부엌의 수납가구는 물품을 보관하기에 적합한 선반이 설치되어 있다.	2.53	2.70	2.90	2.68	2.75
부엌의 수납가구는 식기의 크기, 형태별로 보관할 수 있도록 높이 조절이 가능하다	2.15	2.45	2.64	2.38	5.69* * *
부엌의 수납가구는 수납한 물품을 잘 볼 수 있다	2.49	2.74	2.70	2.66	22.12
부엌의 수납가구는 조리물품별로 정리가 용이하도록 되어 있다	2.45	2.49	2.70	2.50	2.55
디용도실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조리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	2.38	2.56	2.67	2.52	1.67
디용도실에는 물품을 보관하기 쉽게 되어 있다	2.33	2.68	3.0	2.61	1.72
양파, 감자 등과 같은 야채류를 보관하기 용이하다	2.29	2.32	2.13	2.43	0.78
쌀, 라면, 밀가루, 국수와 같은 식품을 보관할 공간이 적절하게 있다	2.43	2.43	2.70	2.50	1.158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커피포트, 토스터 등과 가전제품을 보관할 장소가 있다.	2.38	2.56	2.68	2.52	1.419
식당의 장식장은 사용하기에 적당한 위치에 있다	2.33	2.68	3.00	2.62	6.76* * *

***p<.001 **p<.01 *p<.05

5:매우만족 4:만족 3:보통 2:불만족 1:매우 불만족

3) 식생활공간의 조리물품과 관련된 수납만족도

조리물품 관련된 수납 만족도 평가 결과를 F검정한 결과 평형간의 유의적 차이가 있는 항목은

다 1점까지 5단계 리커트 척도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조리물품관련 수납요구사항은 평형간의 F검정한 결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

<표 11> 조리물품관련 수납요구항목

N=232

조리물품 관련 수납요구항목	20평형대	30평형대	40평형대	평균	F값
자주 사용하는 조리물품은 외관상 좋지 않아도 보이도록 수납을 하여야 한다	2.96	2.75	2.61	2.80	1.44
조리물품의 크기에 맞게 칸막이를 움직이거나 높이 조절 등이 가능해야 한다	4.07	4.02	4.18	4.06	0.65
관리가 힘들어도 가전제품, 교자상, 부피가 큰 조리용품은 식생활공간 외에 다른 곳에 보관해도 좋다	3.41	3.50	3.24	3.44	0.79
캔류, 라면, 음료수, 쌀, 채소류(양파, 마늘)등의 식품저장용 수납공간이 다용도실에 별도로 필요하다	3.92	3.79	4.18	3.89	2.39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토스트등 가전제품은 사용하는 위치에 놓는 것 보다는 한 곳에 놓는 것이 좋다	3.08	3.13	3.00	3.10	.170
자주 사용하는 일상 조리물품은 작업하기에 가까운 곳에 수납해야 한다.	4.40	4.30	4.40	4.34	1.21
자주 사용하지 않는 비일상 조리물품을 다용도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3.75	3.73	3.94	3.77	0.91
수납량이 줄어도 접시는 포개 놓는 것보다 새로로 세워 보관할 수 있으면 좋겠다.	3.37	3.35	3.67	3.41	1.40
수납가구 내부는 선반보다는 서랍식이 조리물품 보관에 좋다	3.16	3.10	3.15	3.12	0.08
다른 공간이 적어지더라도 여분의 식생활용품(인어식품)을 보관할 수 있는 장고가 있으면 좋겠다	3.55	3.72	3.85	3.69	1.65
조리물품 수납은 색상과 디자인이 보다 튼튼한 면을 더 고려해야 한다	3.52	3.61	3.88	3.62	1.77
냉장고의 위치는 식당 가까이 보다는 조리대 가까이에 두는 것이 좋다	3.70	3.80	3.42	3.71	2.18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다용도실에 선반을 설치해야 한다	4.00	4.00	4.24	4.04	1.62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조리물품을 찾기 쉽게, 꺼내기 쉽게, 넣기 쉽도록 해야 한다	3.92	3.98	4.15	3.99	0.91
0.98식사공간이 줄어도 식당에 수납공간이 현재보다 넓으면 좋겠다	3.12	3.15	2.85	3.10	0.99
개수대 아래부분은 불판을 보관하는 것보다 쓰레기처리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3.12	3.28	3.00	3.19	0.92
전기표를 부담하더라도 조리물품이 잘 보이도록 조명등이 설치되면 좋겠다	2.62	2.88	3.15	2.84	3.10
부엌작업대가 줄더라도 수납공간이 넓었으면 좋겠다	2.73	2.91	2.70	2.82	0.97

***p<.001 **p<.01 *p<.05

5:매우 그렇다 4:그렇다 3:그저그렇다 2:그렇지않다 1:전혀그렇지 않다.

■ 4.0 이상 □ 3.7이상

는 항목이 없는 결과를 보였다. 평형에 관계없이 '조리물품의 크기에 맞게 칸막이를 움직이거나 높이 조절 등이 가능해야 한다' 항목이 요구도 점수가 4.06을 나타내며, '자주 사용하는 일상 조리물품은 작업하기에 가까운 곳에 수납해야 한다' 항목의 점수가 4.34로 매우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다용도실 선반

을 설치해야한다' 3.98의 상당히 높은 요구도를 보여 다용도실 선반을 설치할 공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여 식생활공간의 수납실태와 수납가구에 대한 만족도, 요구도를

살펴본 것으로 수납계획에 기초자료가 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식생활공간의 수납가구 보유에서 부엌 키 큰장, 식기장식장, 보조수납가구의 경우 평형별 차이를 보였으나 선반설치와 다용도실 수납가구 설치는 평형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효율적 수납을 위해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식생활공간의 주거특성에서 40평형의 경우 부엌, 식당 / 거실분리 평면연결형태와 T자형의 부엌작업배치형태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평형대와 30평형대에 비해 공간이 넓은 이유라 하겠다.

셋째, 각 수납공간 확보를 위해 40평형대에서는 다른 평형에 비해 웨건을 구입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20평형대에서는 선반을 설치하거나, 상자나 박스를 이용해 수납을 하였다. 실제 부족한 수납공간을 느끼면서 실제 개선하지 못한 이유에서는 평형별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40평형대의 '번거로움'과 20평형과 30평형의 '비용이 들어서'가 각각 높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다. 넷째, 수납가구에 대한 만족도는 부엌 키 큰장, 부엌보조기구, 식기장식장의 만족도가 20평형대와 30평형대에 비해 40평형대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평형에 관계없이 '조리물품의 크기에 맞게 칸막이를 움직이거나 높이 조절 등이 가능해야 한다' 항목이 요구도 점수가 4.06을 나타내며, '자주 사용하는 일상 조리물품은 작업하기에 가까운 곳에 수납해야 한다.' 항목의 점수가 4.34로 매우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다용도실 선반을 설치해야 한다' 3.98의 상당히 높은 요구도를 보여 다용도실 선반을 설치할 공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수납가구에 대한 만족과 요구를 평형별로 살펴보았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거주자의 수납태도 인자를 파악하여 만

족도와 요구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김석경(1997), 입체수납시스템을 적용한 소형공동주택의 내부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주택공사, Vol.97-46. p1-164
2. 박영순·신인호(1998), 거주 후 평가(P.O.E)에 의한 아파트 수납공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실내디자인학회지, 9호. p.134-138
3. 박영순·김수경(1989), 서울근교 농촌주택의 수납가구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 27권 2호. p.97-114
3. 박준영(1999), 공동주택 수납시스템 적용성 제고 방안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15(6). p.93-102
4. 손광제(1989), 도시주택 수납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4). p.73-84
5. 정미란·안옥희(1992), 국민주택규모에 있어서 거주자의 수납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3(1). p.47-56
6. 조성희(1992), 집합주택의 수납시설에 관한 행태적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8(7). p.33-41
7. 최승희·임춘삼(1998), 아파트 거실과 식당·부엌의 수납공간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6호. p.142-152
8. 최재순(1991), 집합주택의 수납공간 크기와 생활태도 및 의식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 회학술발표논문집 제2호. p.19-28
9. 한영호·한복득(1998),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의 수납공간에 대한 개선 방안, 한국실내디자인학회학회지 7호. p.30-36
10. 홍이경·오혜경(1997), 아파트의 수납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학회지 11호. p.3-10